

한새봉에서 농사 짓고 주민들과 함께 연극 공연

미리 보는 2016 광주비엔날레

<1>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

제11회 '2016 광주비엔날레'는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지역민작품 작품을 선보인다. 일부 작가들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를 방문하며 리서치하는 등 지역 기반 작품 구상에 들어갔다. 비엔날레 개막을 한달 앞두고 어떤 작품이 제작되고 있는지 미리 만나본다.

지난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두레 농업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는 주민 20여명이 모여 한창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저마다 연극 대본을 손에 든 채 맡은 역할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는 사투리를 쓰면 좋겠어요. 곁은 나이가 들어보이지만 강단 있는 내면을 표현해야하니까 목소리에는 힘을 실어 주세요.”

“등산객들은 춤을 추며 등장해야하니까 음악을 미리 골라놓을게요. 미리 만나서 단체춤 연습해보고요.”

“생물학자는 가운과 안경을 써서 지적인 모습을 표현해볼게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은 주민들은 대사를 맞춰보며 목소리톤과 분위기를 조율했다.

주민들은 '2016 광주 비엔날레' 참여작가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Fernando Garcia Dory·스페인)와 오는 9월 3~4일 연극 공연을 앞두고 있다.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는 올해 비엔날레 주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에 맞춰 예술을 통해 광주 도시 생태계 흐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2012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예술 전시회인 '카셀 도큐멘타' 등에 참여했던 작가는 지난 40여년간 국내 소극장 운동과 정치를 도시 개발 모델과 연계 지어 연극을 선보인다.

도시가 개발되며 아픔을 겪었던 땅과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광주지역 귀농학교 등을 둘러보며 리서치를 진행했다. 올해 4월 한새봉 두레 회원들을 만나 작업을 제안했다. 한새봉 두레는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한새봉 자락에서 친환경 공동 경작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난 2012 비엔날레때 진행했던 '나도 비엔날레 작가-마살'에 참여해 대상을 받기도 했다.

작가는 곡괭이를 들고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등 소통에 나섰다. 회원들도 자체 기획팀을 꾸려 매주 한차례 회의를 열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작가 일정상 매 회의마다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환경문제 담은 '도롱뇽의 비탄'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

사진·영상으로 만들어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꾸준히 소통했다.

도리 작가는 지난 11일 '도롱뇽의 비탄'이라는 대본을 완성해 회원들에게 보여줬다. 무분별한 개발에 도롱뇽과 개구리들이 아픔을 겪는다는 이야기다.

특별한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한새봉 자락에 위치한 개구리는 주위에서 연극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연배우는 모두 주민들로 구성된다. 씨앗 역에는 6살 박세윤양, 개구리 역에는 김진원(9)군 등 어린아이부터 농부를 맡은 60살 이상인 한새봉 두레 회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뭇 어려운 내용일 수 있었지만 어른 출연진은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약 한달만 정도 남은 빠듯한 일정이지만 참여주민들은 누구하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캐스팅, 연기 연습 등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입인자 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이 자원역할을 맡아 도움이 나섰다. 임 감독은 회의 때마다 참석하며 기술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작가와 주민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숫대, 생물학자, 경찰, 정치가 등 다양한 등장인물 의상은 전남대 의상학과 학생들이 맡았다.

도리 작가는 연극 모습과 만들어진 과정을 사진, 영상으로 만들어 비엔날레 기간 한새봉 두레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임 감독은 “이번 연극은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며 “안성된 결과물보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며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4월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민공동체모임 '한새봉 두레'를 방문한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가 농사체험을 하고 있다.작가는 주민들과 환경문제를 다룬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 작가가 논 주변으로 펼쳐지는 무대를 그린 수채화 사진.



지난 22일 한새봉 두레 회원들이 워크숍을 열고 연극 대본 리딩을 하고 있다.

다문화시대 창극 '흐영의 희망일기'



전남도립국악단 29·30일 무안 남도소리 올림터 전통과 현대 요소 접목

'정통 창극의 변신.'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정기 공연으로 시대 창극 '흐영의 희망일기'를 선보인다. 29일 오후 7시, 30일 오후 5시 무안 남도소리 올림터.

'흐영의 희망일기'는 다문화 가정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그린 전통 창극과 달리 '현재의 문제'를 소재로 삼아 다양한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게 특징이다. 국악단은 새로운 시도에 '시대 창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품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여주인공 흐영이 무안군 노총각 삼삼이와 결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흐영과 삼삼이가 풀어놓는 사랑과 갈등, 화해와 용서, 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안무와 음악, 아름다운 영상과 조명,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무대 메커니즘을 통해 선보이게 된다.

'푸르른 날에'로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한 정경진씨가 대본을 쓰고 유 감독이 각색과 작곡, 연출을 맡았다. 안무는 전통적인 춤사위와 함께 현대적인 한국무용(안무가 정란 전 목포시립무용단 예술감독)과 뮤지컬 안무(안무가 문의인)까지 접목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냈다.

또 오성민 영상감독은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과 목포·무안의 지역 영상을 담아냈으며, 작곡가 송광식씨가 컴퓨터 작곡과 음악디렉팅을 맡았다. 그 밖에, 베트남의 전통 현악기 단보우(Danbau) 연주자인 베트남의 레 화이 프영(Le Hoai Phuong)씨가 특별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1만원. 다양한 할인 혜택 있음. 문의 전남도립국악단 061-28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여름방학 고교생 프로그램 'ACC Teen'

전문가와 직업 체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프로그램 'ACC Teen'을 운영한다.

'ACC Teen' 중 직업심화체험프로그램은 ACC의 주요 콘텐츠인 전시, 출판, 공연과 관련한 대표적인 직업을 전문가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큐레이터 과정'은 전시 콘셉트 연구, 미술관 및 대안 공간 등 현장 답사, 현장 활동가와의 멘토링, 기획실무 과정을 교육한다.

'편집디자인 과정'은 기획자, 리포터, 사진가, 기고가, 에디터 등의 활

동을 통해 잡지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체험해 보는 수업이다.

이유정 '프로젝트 언' 대표가 진행하는 '무대디자인 과정'은 무대미술과 극장공간의 이해, 작품 분석, 극장 모형 및 작품 모형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김우성 '무대의상디자인하우스 KOSTUME' 대표가 맡은 '무대의상 디자인 과정'은 복식과 무대의상의 이해, 의상제작 기법과 활용, 오브제 활용 제작실습을 진행한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각 강좌별로 7~10차 과정이 진행된다. 마감은 8월 1일까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술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술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술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술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술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